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환율은 전일 대비 8.4원 하락한 1,169.2원으로 마감

전일 환율은 엘런 미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1,160원대 후반까지 하락했다.

이날 환율은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을 앞둔 관망세로 거래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장중 엘런 의장이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음에 따라 빠르게 하락했다. 이날 엘런 의장은 스탠퍼드대학 연설에서 현재 미국 경제가 과열 상태가 아니라고 평가하며 점진적 금리 인상 기초를 재확인했다. 엘런 의장의 발언 이후 달러가 약세 전환되며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8.4원 하락한 1,169.2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편 이날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전일 대비 7.41원 하락한 1,019.58원에 거래되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75.20	1177.70	1168.00	1169.20	1172.5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25.99	1026.41	1013.57	1021.54

금일 전망

달러 강세 기대감 약화되며 1,160원대 후반 등락 전망

금일 환율은 트럼프의 취임식 이후 글로벌 달러 약세의 영향을 받아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밤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은 5.95원(스왑포인트 고려)상승한 1,175.00원으로 마감하였다. 지난 주말 트럼프의 취임사에서 재정정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따른 실망감으로 글로벌 달러는 하락했다. 트럼프가 자국중심의 보호 무역주의를 강조하며 달러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 만큼 금일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주 설 연휴를 앞둔 수출업체 네고물량 또한 수급상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여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60원대 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67.00 ~ 1180.80 원

체크포인트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65.44억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95원 ↑

美 다우지수 : 19827.25, +94.85p(+0.4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1.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780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